

금요 양성 6월 14일

## 재속프란치스코회 문서들

최근에 우리 회칙 각 영역의 내용을 기술하고 그에 따른 주석을 제공하는 금요 양성 연재를 마쳤다. 각 단위 형제회가 이 연재를 회칙에 대한 영속 양성기초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극을 받았으면 하고 희망한다. 덧붙여 각 회원 (특히 평의회원으로 봉사하는 회원들)이 회헌과 국가 규정을 잘 아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회헌과 국가 규정은 회칙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형제회 생활에서 우리가 부딪치는 (종교도 도전적인) 대부분의 (많은)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 우리 회칙에는 머리말과 26개의 조항이 있다. (“규칙들”이라고 칭하지 않고 조항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규제적인 목록이 아니라 생활 양식이라는 의미가 더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수도회와 종교기관들은 그들의 창시자들의 카리스마를 따른다. 일반적으로 창시자들은 어떤 특정 공동체의 회칙을 쓰거나 영감을 부여한다. 회칙의 의도는 한 수도회의 창시자가 더 이상 수도회원들과 함께 있지 않을 때 그들이 창시자의 영감의 지표로 지키며 살아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수도 공동체의 회칙들은, 교황청의 인준을 받아야 하지만, 일반적이고, 대부분의 경우 수도 공동체를 다스리거나 진정으로 그 회칙을 살아내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제시되지 않는다.

“‘회칙’ (라틴어: regula, 그리스어: kanon)이란 단어는 글자 그대로 어떤 것을 테스트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종교나 재속 기관인 경우에 **그 회칙은 공동체의 영적인 기초와 정체성을 정립한다.** 그 기관의 모든 다른 문서들이 - 헌법, 규정, 기타 등등- 그 회칙을 바탕으로 하여 정해진다. 교회안에 있는 수도 단체나 재속 기관을 위한 회칙의 허가는 교황청의 권한이다. “ (Michael Higgins, TOR 의 *“Importance of Familiarization with the Documents of the Secular Franciscan Order.”* 참조)

회칙은 “규칙들”을 모아놓은 목록이 아니라 창시자의 비전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계획의 윤곽 즉 생활 양식**이다. 재속프란치스코회의 비전은 머리말과 **26개의 회칙조항**에 표현되어 있다.

**+우리에게는 회칙을 이행하고 재속회를 다스리는데 도움을 주는 회헌이 있다.**

회헌 (이 또한 교황청의 승인을 받았다)은 **회칙을 해석하고 이행하는 방법들을** 더욱 더 구체적화 한다.

프란치스코 여정 106 쪽에서 레스트 바흐, OFM Cap. 은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한다.

“**재속프란치스코 회헌은 회칙에 대한 견해와 회칙을 이해하기 위한 식견을 담고 있다.** 회헌은 회칙이 공동체 생활안에 살아 있도록 도와주는 체계라고 명시한다. 회헌은 교회법적인 절차나 구조적인 발전과 같은 것들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미온적인 구성원들에 대한 문제나 형제회 생활에서의 섬기는 지도자들 (평의회원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회헌은 형제회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처리하는 방법과 수단들을 제시한다. “ 봉사자들과 평의회원들은 형제회 생활이나 회원에 대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회헌을 참조해야함을 주목해야 한다. **이 제안을 따르면 많은 혼란을 피할 수 있다.**”

**+국가 규정은 국가 형제회안에 속한 모든 등급의 형제회를 다스리는데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국가 형제회가 개발한 것이다.**

회헌의 29조 3항은 모든 국가 형제회가 자체 규정을 개발하기를 요청하고 있다. “국가 규정은 그 나라안에서의 재속프란치스코회의 조직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이 기준의 적용은 해당 형제회의 책임자와 국가 평의회에 맡겨져 있다.” 국가 규정은 교황청의 인준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상급 형제회 (CIOFS - 국제형제회) 평의회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 어떤 특정 국가의 규정은 그 나라의 문화와 관습을 고려해야 하며 회헌에 나와 있는 것에 상세함을 추가한다. 규정은 회헌보다 더 구속적일수는 있지만 적어도 회헌만큼은 구속적이어야 한다.

모든 회원들은 회칙, 회헌, 규정에 접근 가능해야 한다. 국가 형제회 웹사이트와 국제형제회 웹사이트에서 최근의 번역본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링크 참조)

OFS 집행 문서들: <https://www.secularfranciscansusa.org/ongoing-formation-resources/#38871d71653d8dcec>

OFS의 공식 문서들: <https://ciofs.info/library/official-documents/>

### **토의를 위해서 또는 저널에 답을 쓰기위한 질문들**

+가장 마지막으로 회칙과 회헌을 읽은 적이 언제 입니까? 시간을 내어 다시 한 번 읽으시오: 그 다음 주에 집중해서 읽을 2-3 영역을 골라 보시오. 두 문서를 다 읽을 때까지 이런 식으로 해 보시오

++위의 “사랑의 노동” (회칙, 회헌 집중 읽기)을 완수했을 때에 마음에 닿는 몇가지를 기록해 보시오.

+당신의 형제회는 영속 양성으로 회칙과 회헌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그것들을 사용하기 위한 참신한 생각들을 평의회나 양성 담당자에게 제출해 보시오

+매일 회칙의 한 조항을 기도하겠다고 결심해 보시오.